



보도자료

2025.5.27(화)

고상진 빛의혁명시민본부 행정지원팀장(010.3654.8525)

노년유니온 등 노년세대 3대 노조, 민주당에 정책요구안 전달

전국시니어노동조합과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노년 세대를 대표하는 3개 노동조합이 27일 민주당을 방문,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과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서병철 전국시니어노조 사업개발 국장 등은 이날 정책요구안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아 많은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에 정부에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정부는 이 사안을 올해 사안으로 채택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많은 노인들을 소득공백과 복지공백으로 몰 수 있는 문제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김현정 수석부분부장은 “현재 노인 관련 정책요구들은 조만간 우리 인구의 핵심 세대인 40대, 50대가 겪게 될 미래”라며 “전달해주신 정책 요구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이 아니라 법과 예산, 제도와 실행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첨부

